풍자 시집

벌거벗은 아메리카

백인준

백 인준 풍자 시집

벌거벗은 아메리카

조선 작가 동맹 출판사

1 9 6 1

차례

장정…허 영

저주의 노래

저주가 어찌 노래로 되랴、
그것은 칼날이며 폭풍
차고 매서운 서릿발、
그것은 마음 속에 지니기조차
힘들고 괴로운 것。

그러나 내 저주하노라

만신의 힘을 다해 저주하노라
미국놈과 그의 머슴들을
아침저녁 저주하노라。

이럴 때면
나의 팔 다리와 머리와
위와 심장도
그리고 크고 작은
열 손가락 마디마디도
모두 오직
증오로써만 만들어진 듯、
나의 몸 二〇〇여의

매개 세포로부터 저주하노라。

우쭐한 미국 「신사」들의
그 싱거운 낯바닥을 향하여
나의 입가에 떠오르는 이 비웃음의
설핏 지나가는 그림자만 잡아서
태평양 한가운데 던진다 해도
온 바다물이 쓰거워지리。

내 백 년 동안 「도」를 닦아
「부처님」의 서른 세 배나 더
「자비」하고 「인자」해진다 하라、
그래도 내

아메리카 「문명」만은 저주하리라、
내 혹시 지나치게 「덕」이 높아져
놈들에 대한 증오마저 잊어 버린다면
그런다면 내 소리치며 일부러
「덕」없는 자로 굴러 떨어져서라도
증오하리라 양키들을。

내 놈들에게는
오직 저주하기 위하여서만 태여난 사람、
이렇게 나의 온몸에 지닌 저주로 하여
나의 혈액마저 걸어진다 하라、
높아 걱정인 나의 혈압이 더 높아지고

나의 수면에도 해롭다 하라、
그래도 내
우리 땅을 짓밟은
아메리카 파렴치한들을 증오하리라。
그로 하여 나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
사납고 거칠어진다 하라、
그래도 내
저주의 목소리 멎추지 않으리라。

나도 좀 더
아름다운 노래、
향기 그윽하고

깊은 사색에 가슴 뿌듯한 시、
이 세상에서 제국주의가 없어진
그 날에 가서도 읽을 맛 있는
그런 노래 쓰기를 배우고 싶노라。

내 스스로 보기에도
무뚝뚝하고 향기 없는
나의 증오의 시편들을 어루만지며
내 때때로 펜대를 부르쥐고
괴로운 밤을 지새우기도 하노니
싫어서가 아니노라、 결코!
저주의 시를 쓰기도

사랑의 노래 쓰기보다
그리 헐하지는 않은 일。

내 차라리 제국주의의 배때기에
저주의 단도를 석 자나 박아
호박 속 우벼 내듯 와왁 우벼 낸다면,
또는 나의 이 증오의 주먹으로
양키들의 턱주가리를 답새워
단매에 차뭇개 쩌개듯 쩌개 버린다면
나의 이 만신의 증오 풀릴 수도 있으리。
그러나 나는
칼과 주먹으로써가 아니라

나의 시행들로써
놈들의 턱주가리를 쳐야 할 사람、
그렇다면 너무도 온순하고 부드럽구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어휘들은。

그러나 나의 저주의 창기병들아
나의 멸시의 기마병들아
나의 증오의 돌격대들아
달려 나가자 고함 지르며
찌르며 짓이기며 밟아 버리며
저기 원쑤들이 구불거리는
우리들의 결전장으로!

거기서 너희들
무명의 전사로 쓰러지고
그 옛날 석전에 씌여진
한날 돌멩이 같이 묻혀 버려도
후세의 사람들은 알아 주리라、
이런 싸움의 시대를 지나
공산주의의 노래 소리가
아름답게 지구 우에 가득 찬 것을。

―一九六〇―

게걸든 아메리카

으르렁거린다、 발버둥친다、 먹지를 못해。
지나치게 잡수어 병들었건만
그래도 아직 더 먹겠다누나、
三 년 굶은 승냥이 같이…。
그러나 「가엾어라!」 부러졌구나、
잇발도、 뒷다리도 코잔등마저…。

조선의 부뚜막에서 부지깽이찜질하고
수에즈 현관에서 멱살을 잡히였다。

위스키보다도 더 달게 넘어 가던
씨리아의 석유도 목구멍에 걸렸구나。
하물며 어찌 잇발이나 대여 보랴、
우주로 날고 있는 강철의 위성에야…

먹을수록 배고픈 자본주의 병、
먹다 먹다가、죽어 가는 그 순간도
한 가지 소원은 먹는 것이겠지만、
어찌 하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

그래도 먹겠다니 잡수시래다、
망둥이 같이 제 새끼라도…。
그러나 우리에겐 드릴 게 없다、
「사망 진단서」한 장밖에는…

—一九五八—

물러가라! 아메리카

어느 때였는가?— 백 년 전이였다。
아메리카가 조선에 처음 통성해 온 것은…
오만한 손님은 『샤만』호 우에서
대포에 기대여 통성—호통을 했다。
례절을 못 배운 이 뜨내기들에게
주인은 버릇을 배워 주였다

「도적에게는 몽둥이가 제일이라」는
옛어른들의 가르침 대로…。

그 후 아메리카는 옷차림을 바꾸었다。
칼 대신에 十자가를 들고
목소리도 변했다、「부드럽게」「거룩하게」
「아멘! 아멘! 에헴! 아…멘…」

숫한 사기사、밀정、매음녀들이
찬송가와 성경 읽는 법을 배웠고、
기도、전도、목도하기를 련습했다。
하여 조선으로! 동방으로!…

「일본이 조선의 땅덩이를 점령하면
미국은 조선의 「령혼」을 점령하라!」…
그러나 이것저것 다 틀려지자
아메리카는 「아멘」도 가면도 동댕이쳤다。

「천사」는 분명 하늘로 날아 왔으나
삐ー二九 폭격기 우에 앉아 있었고、
아메리카의 「예수」는 조선의 하늘 우에서
「성」스러운 페스트균을 「은혜」롭게 뿌려 주었다。

「신화」는 부서지고 눈퉁은 터지였다。
세계의 면전에서 격투는 끝났다。

그래도 아직 못 물러가겠단다、
『황금의 나라』— 조선에서…

『황금의 나라』? 하기야 어찌 황금 뿐이랴
백금도、 생금도 다 있는 나라!
강물만 퍼담아도 구슬이 고이는 땅、
기후로 말한대도 어찌 『하와이』가 당하리。

그러나 어이 하랴 주인이 있는 것을、
조선은 대대로 조선 인민이
그의 옷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이옷을 사랑하며 살아 오는 땅!

더 어붙지리단 뼈가 꺾어지리니
「샤만」호를 타고 왔던 너의 하내비들 같이
면 외국 땅에서 객사하지 않으려면
물러가라 아메리카! 백 년의 죄악사를 결속할 때는 왔다.

—一九五八—

결산하라! 아메리카

봄은 왔건만 저물어 가누나
낡은 자본주의 회계 년도는。
결산을 하자! 아메리카야、
장부를 꺼내 놓으라、 너의 죄악의…

너 이 세상에 생겨 나 三〇〇 년、
력대의 자본가들이 긁어 모은

리윤의 총 합계는 그 얼마이냐?
피와 기름과 눈물에 젖은
그 축축한 지폐들을 모두 쌓아 놓아도
녀의 죄악의 크기를
다 말하지는 못하리라。

몇 억、 몇 십억의 인간이
통곡하며 가슴 치다 죽어 갔느냐、
녀—아메리카— 딸라 때문에…?
너로 하여 흘린 인류의 눈물은
흘러 바다로 흘러
태평양 물을 더욱 짜게 했으리。

생각하노라、 생각하노라、
수백만의 그 어린 아기들에게 대하여。
제대로 자랐으면 지금은 아마
유쾌한 선반공、 존경 받는 학자、
어찌 없었으랴 그 속에는
인류가 자랑할 천재와 영웅도…
그러나 그 어린 생명들은 죽어 갔더라。
누더기 속에서 굶주리여서—

너 살진 아메리카야、
너의 몸에 두른 그 보드라운 비단이
그 얼마나 많은 인민의 목을

쇠사슬보다도 무섭게、 사납게
조여 매고 훌치여 숨이 지게 했느냐！

하늘에 사무쳤다 원한은！
인민은 소리친다、 지구의 이 쪽과 저 쪽에서
「결산하라！ 아메리카야、 자본주의야！」

나서라！ 누구냐 누구냐
자본주의의 마지막 대리인은？
나서려느냐、 네가？— 아이젠하워？
나서려느냐、 네가？— 물간？
너 감히 인류의 력사에서

추악한 자본주의의 마지막 상주(喪主)로서,
지폐를 붙들고 통곡하여 보려느냐?
아니면 물러서라! 물러서라!

너의 모든 죄악의 값을 받아 내리니
결산을 하자! 아메리카야,
력사의 앞에서, 너의 죄악을。
때는 가까왔다, 너의 마지막。
지구 우에는 새 봄이 왔다,
인류의 새 시대가…。

— 一九五九 —

「하느님」과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말하기 좋아한다
「하느님」과 「예수」에 대해……
부녀자에게 달려들면서도 「하느님」을 찾는다。

그들은 그 이름으로 수백 년 동안
동방에서는 황금、남방에서는 고무
아프리카에서는 흑인을 실어 갔다。

그들은 바로 그 이름으로 조선에도
처음에는 선교사、다음에는 대포、
마지막엔 파리와 모기를 보내 왔다。

리 승만이도 「하느님」의 아들로서
미국 며느리에 조선옷을 입히여
남조선 인민 앞에 「국모」로 데려 왔다。

「하느님」이 하는 짓이 하도 괘씸해
내 그 놈을 붙잡아 불이 나게 따귀를 치니
웬걸! 그 속에서 아메리카가 「아멘!」

— 一九五八 —

떠드는 아메리카

대양 건너 미국 집에선
一년 열 두 달 떠드는 소리、
대통령은 마이크통을 두드리며
두꺼비 같은 주둥이를 너불거린다。
「남… 한… 은… 자… 유… 자…」
유엔 미국 대표는 一五 년 동안을

오직 한 마디만 외우고 밥을 떠는다、
마치 줄이 잘못된 헌 레코드판 모양
「우리는 한국에 원조 원조 원조 원조 원조조조조…」
한편에서는 리 승만、장 면、장 개석…
신통히도 같은 것들이 뻬스를 넣는다
「미국 주인님 미국 주인님 미국 주인님…」
왜 이다지들 떠들어 대는가
불난 집 모양、
「예수」로 백 변、

정탐으로 한 세기、
그래도 안 되여 전쟁으로 또 三 년、
그래도 못 먹은 조선 강토를
「연설」을 해서 먹어 보잰다、 「연설」을…

미안하지만 걷어 치우라、
침방울이 튄다 아메리카 「신사」님들、
두더지는 주둥이로 땅이라도 파지만
자네들의 얇다란 그 입술로야…

떠들려거든 떠들라 하라、
떠들다 성대마저 찢어지면

참대라도 깎아 넣고 떠들라 하랴,
우리는 부르도젤의 커다란 손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흙을 퍼담아
마지막 웅뎅이를 메워 버리리,
아메리카 개구리들의 울음 소리마저도。

ㅡ一九五八ㅡ

벌거벗은 아메리카

쭉 벌거벗었구나 아메리카는
인류의 면전에서 그의 문명 앞에서,
홀딱 벗고 나섰다 『자유』 아메리카는,
그 구린내 나는 알몸뚱이를…

완력 사나운 강도들이 달려들어
연약한 한 녀인을 벌거벗겼으니

어찌 하랴 수난을 당할 수밖에、
뺑끼를 온몸에 묻히우고 녀인은
맨몸으로 거리에 내쫓기였다。

그러나 오늘 과연
누가 벌거벗였나 인류의 량심 앞에서?
남조선의 한 녀인인가 아니면
「거룩」한 아메리카의 『신사』들인가?

온 세계 사람들이 대답하누나、
「그것은 아메리카! 바로 아메리카 자신!」
그의 문화、 그의 도덕은

二〇세기 六〇년대도 바로 정월 초하루 날에
쭉 벗고 나섰다、 인류의 면전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억지로 그들을 벗기지 않았건만
스스로 홀딱 드러내 놓았구나、
그 구리고 구린 제국주의의 썩은 몸뚱아리를。
(나는 시인
수천 수만의 말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언어들만을 골라
그 우에 또 운과 역양을 붙이는 사람、
두꺼비를 보고도 점잖게

「개구리의 사촌」이라 불러 주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나 이번만은
아무리 좋은 말 다 골라 봐도
할 수 없구나 달리 말할 수는……)

시인의 상상력이 아니라도
눈에 선히 보인다、아메리카 「신사」들이
쭉 벌거벗고 워싱톤 네거리로
「문화」를 떠들며 분주히 오고감이。
라체에 중절모는 어울리지 않건만
그도승대 용차에 푹신히 앉아
쭉 벌거벗은 미국의 운행가들。

나는 상상하노라 「라체의 왕국」을、
모든 위선과 가면마저 벗어 동댕이친 나라。
쭉 벗고 앉은 대통령이며
쭉 벗고 일어 선 국무 장관이며…
그들의 밑에서 징그러운지
나무로 만든 의자도 마루바닥도 삐걱거린다。

내 온 세계 사람들께 권고하노니
양키들이 당신 앞에 온다면
그 놈이 제아무리 「신사」같이 입었어도
벌거벗은 놈이라고만 생각하시라。
그렇다、사실 그렇다!

바로 아메리카는
인류의 면전에서 벗고 날친다。
인류의 문화와 량심에 대한
이 흉측한 도전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웨친다、고함친다
「얘 이 께끈한 새끼들아!
우리는 너희들을 내쫓을 테다、
조선의 밖으로、
지구의 밖으로!」

—一九六〇—

차비하라 아메리카여

내 지난날 천쟁의 불ㅅ길 속에서
조선의 고지 영웅의 전호에 높이 서서
부서져 나가는 아메리카를 발 밑에 굽어 보며
세계를 향하여 말하였노라
「아메리카여、얼굴을 붉히라」고…

오늘은 내

조선의 창공에 거연히 솟은
사회주의 건설의 기중기 우에 높이 올라
죽어 가는 아메리카를 건너다 보며
세계를 향하여 알려 주노라
「림종의 순간이 온다、
차비하라 아메리카여!」

마지막 발악을 한다 병든 아메리카는、
요동을 친다 고함 지른다
뒤집어친다 부등켜 안는다…

범죄 통계— 시속 三〇〇 건!

대독과 성경책、
살인과 향수、
실업자와 칠면조 료리…
이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되여
아메리카의 문명은 굴러 내린다、
二〇 세기의 후반기 언덕을。

서울에서 도꾜에서 그리고 파리에서도
아메리카의 군인들이 『찦』차를 내몬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굽어 보니
그들은 모두 한 곳으로 달려 가누나、
피바퀴 자리 그어 가면서

지옥을 향해 쏜살같이 나간다、
무엇이 좋은지 휘파람을 불면서
츄잉껌을 씹으며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며…

차비하라 제국주의 아메리카여!
너의 멸망의 순간이 온다!

—一九五九—

거지떼

요사이는 날씨가 더워지는 탓인지
거지떼가 부쩍 설렌다、
지구의 도처에 떼지어 나돈다。
도덕의 세계에서 추방 당한 무리들、
량심을 배반하고 쫓겨 난 족속들、
정신 거지들이 짝지어 소동한다。

동네마다 후레자식 하나씩은 있다고
일본에는 이께다 남조선엔 장 면이
유엔에는 함마숄드…。
량심들은 몽땅 팔아 탕진해 버리고
모자라서 저의 처자들의 것마저
『록펠러』은행에 저당 잡혔다、

남은 건 빈 바가지가 아니라
텅텅 빈 두개골 뿐
(하긴 그것도 바가지 비슷은 해)
그러나 께여 찬 건 깡통이 아니라
바오라기 같은 금시계줄들。

상판대기들은 모두 땡가리 같이
두텁고 번질거린다。

국회 의사당 안에서 와글와글
대통령 관저 안에서 득실득실
유엔 본부에서도 장타령을 부른다。
특출한 건 비위 하나 뿐이여서
노래기 회를 한 사발은 마시리。

지구 우의 아기들이 어머니 품속에서
좀 더 조용히 잠들 수 있도록
거지떼들을 없애야겠다。

화물 자동차 두 대만 가져 오라
저 어디 무인도로 태워 보내자、
아마 두 대면 다 싣고도 남으리라。

— 一九六〇 —

저주

내 가끔 눈을 감고
낯익은 서울의 거리 거리를 생각하면
문뜩 떠오르는 미국놈들의 모습、
이 순간도 놈들은 끼뜩거리며
마치 자기 땅인듯
종로로 명동으로 활개치리니
아、떨리는 주먹!

그 곳도 사랑하는 내 조국 땅이 아니냐!

내 여기 한 편의 시를 써서
남조선 하늘가에 띄워 보내노니
글귀들이여 마디마디 칼날이 되여
미국놈의 털가슴에 꽂히여 가라!

×

남조선에서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산천 초목도 분노에 치를 떨라。
남산도 인왕산도 소리치며 일어 서라。
미국놈들이 거리에 나서면
담벽에서 벽돌장도 튀여 나와

놈들의 낯짝을 후려 갈기라。
놈들이 풀밭에 들어 서면
풀잎마다 총창이 되고
놈들이 산 우에 올라 가면
돌멩이마다 지뢰로 튀라。
놈들이 철길에 나서면
강철 레일도 들고 일어 나
놈들의 긴 허리를 꺾어 놓으라。
놈들이 강가에 나서면
강물도 꺼꾸로 흘러 올라
뼈에 사무친 원한의 물결을 높이 들고
놈들의 죄악의 덩지를 삼켜 버리라。

놈들이 우리 나라 물을 마시거든
그 방울 방울이 끓는 쇠물이 되여
놈들의 목구멍을 메우게 하라。
놈들이 그 탐욕의 눈으로
우리 땅 그 무엇을 훔쳐 보려 하거든
한강 기슭의 모래알들이 일제히 날아 와
놈들의 눈구멍을 메꿔 버리라。
놈들을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해도 달도 별도 빛을 보내지 말라。
놈들이 그 기만의 입을 벌리고
무엇인가 지껄이려 하거든
바람이여、 증오의 폭풍이여

온 남조선의 쓰레기를 몰아다가
놈들의 입을 틀어 막으라。
놈들이 그 간첩의 귀를 쫑긋거리며
우리 땅의 바람 소리 하나라도
몰래 도적하여 들으려 하거든
놈들로 하여 一五 년 동안
남조선 천지에 가득 차 넘친
그 모든 총소리와 대포 소리
앓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일시에 울려
그 모든 불행의 소음이
놈들의 귓속에서 한평생 들리게 하라。
놈들이 남조선 땅에서

앉지도 서지도 옴짝도 못 하게 하라。
놈들이 저지른 죄악의 값으로 하여
골통을 싸쥐고 엉엉 울게 하라。
오직 죽는 것 하나만은
언제라도 마음대로 하게 하라。

×

나의 이 저주의 웨침
남조선 하늘로 날아 가
五월의 따스한 날씨에도
찬서리를 부르게 하라。

—一九六〇—

아、기분 좋구나 통쾌하구나!

아、기분 좋구나、통쾌하구나。
신년 벽두부터 속이 시원하구나。
一○○만 리 밖에서 들려 오는 저 소리、
우주 로케트가 보내는 신호 소리、
화성에도 금성에도 또렷이 들리도록‥
(어떻게 들으면)
—공—산—주—의—만—세!

태평양 상공을 단숨에 날아、
금강산 저 우에로 아득히 날며
(어떻게 들으면)
—천—리—마—조—선—만—세！
아、기분 좋구나、신년도 벽두부터！

그런데 강건너집「백악관」에서
아이크씨、델레스씨 들으시나요？
무어라고 합디까、당신들 보고서는？
귀나 막아서야 무얼 합니까？
나사못을 가져다 죄여 박아 보지요。
그때도 귓속에선 자꾸 들려 오리니

무어라고 합디까、 당신들 보고서는?
아 하하하… 기분 좋구나。

(어떻게 들으면)
―자―본―주―의―멸―망!
(또 어떻게 들으면)
―따라 와― 보지요― 재간이― 있으면―
따라 와― 보지요― 재간이― 있으면…

물어나 봅시다! 몰간씨、 닉슨씨、
저 우주 로케트가 어느 나라 것인가요?
아 하하하… 기분 좋구나! 볼 만하구나。

신년부터 찌그러진 낮판대기들、
아메리카 『신사』들의 저 낮바닥!

종로에서 빰 맞은 얼간 망둥이
뒷골목에 쫓겨 와 눈 흘기듯이、
외딴 곳에 앉아서 흰소리 탕 탕…
『힘의 렵장!』『힘의 렵장!』…

『힘』은 도대체
몇 푼어치나 가지고 있는가요?

『힘』이 있거든 따라 가 보시지
따라 가진 못해도 흉내나마 내 보시지

우주로 날고 있는 공산주의 로케트。

내 몸도 두둥실 로케트 타고
자본주의 아메리카를 아득히 굽어 보며
달나라 별나라로 날고 있는 듯
아 기분 좋구나 이 해는 정초부터。

—一九五九—

속지 말라! 남조선의 형제들이여!

속지 말라! 남조선의 형제들이여!
원쑤들은 당신들에게 새로운 공격을 시작하였다。
놈들은 피 묻은 총창 끝에
꿀을 바르기 시작하였다。
누구가 「사표」를 제출하고
무엇이 「사직」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어찌 모르랴、
남조선 천지에 흘러 넘치는 그 선혈을
한두 장의 사표로써는 씻어 낼 수 없음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어찌 모르랴、
놈들이 총창에 바르는 것이
무기고에 넣어 두기 위한 「구리스」가 아니다、
「달게」 찔리워 죽으라는 기만의 꿀인 것을。

장사 잘 하는 미국놈들이
이번에도 역시 흥정을 붙여 왔다。
서푼을 깎아 주고 삼백 량을 리내면서도
천하의 인심은 혼자 쓰는 척、

바로 그렇게 흥정해 보잔다、
당신들이 흘린 그 붉은 피값도。

당신들이 흘린 그 붉은 피값을
미국놈과 나누려는 거간꾼들이 있다。
놈들은 당신들 속에 섞인 체 하며、
당신들의 피값을 도적질해 내서、
그것으로써 『장관』 자리를 사려고 한다。
놈들은 『장관』의 의자에 앉자마자
당신들의 정의의 웨침 소리도 깔고 앉으리라。
『그만했으면 됐어! 인젠 그만하자』고…
그만하기는 놈들이 그만하래라。

속지 말라! 놈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은
똑똑히 알라!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이제 한 걸음 물러서면
놈들은 백 걸음을 덤벼들리라。
놈들이 내미는 손만 잡으면
그 순간 당신들은 감옥 문을 잡게 되리라
물러서지 말라! 한 걸음도!
「사표」를 내려거든
「대한 민국」이 통채로 내라고 하라。
지금 원쑤는 겁에 질렸다。

겹에 질려서 목소리를 떤다。
눈을 감고 아웅거린다。
아웅거리며 오고 간다、
경무대와 미국 대사관
워싱톤과 서울 사이로
오고 간다、별의별 놈들이
별의별 재주 다 부리면서…
불이 났다、무전대와 장거리 전화。
아이크가 입에 거품을 물고、
허터가 입에 침이 말랐다。
리 승만이가 기도를 하다 채 못 하고、
그의 미국 녀편네가 울음을 운다。

그러나 까마귀 열두 소리를 한마고 해도
그것은 언제나 송장 먹은 그 한소리。

오직 싸움만이 당신들에게
자유와 승리를 가져 오리니、
부러져 가는 놈들의 보쟝을
제창 마저 부러뜨리라!
높이 뜬 배지개를 놓지 말라!
놈들은 발버둥치며
밑에서 아낙수를 걸려고 한다。
들였던 김에 동댕이치라!
섞어진 「대한 민국」을 통채로

태평양도 저 멀리
미국 땅 가까이에 쥐여 던지라。
그리고 우리 이 땅에
통일된 하나의 자유 락원을 꾸며 나가자。

—一九六〇—

『강아지 파거 보기』

미국 려인숙집、 데릴사위、
전당포 주인、 광산 뿌로카、
개시 명창들이 날치고 있다。
그것들이 『정치』를 한댄다、
그 『어르신』들이 『대통령』이 된답신다、
아하하하하…

옛말이나 속담이 아니라
참말 어제밤 세시 좀 넘어서
부산에선가 그리고 서울 어디서도
쭉쭉 삶아 놓은 소대가리가
허허허 웃었댄다、 허허허…

이「통령」저「통령」다 그만두고
미국의 개들이 벼슬하는 자리니
「개통령」이라 함이 딱 들어 맞네、
「개통령」「선거」를 한댄다。
강아지 과거 보기!
어! 비린내가 나눈 선 비린내!

—一九六〇—

『동리 북』

「동리 북」이라、
그것은 동리에 매달아 놓고
오면 가면서 치는 북。
어른도 친다네、
아이들도 친다네。
그래서 잘 얻어 맞는 사람을

『동리 북』이라고 한다네。

세상에는 찾아 다니며 맞는 북、
그런 『북』이 하나 있어、
북미 합중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년세도 좋으신데 맷복은 더 좋아、
『동리 북』이 아니라 『세계 북』이 됐다네。

남미주에서도 얻어 맞았다네。
북미주에서도 주어 맞았다네。
구라파에서도 얼얼하게 맞았다네。
아세아에서는 늘씬하게 맞고 있다네。

—「동리 북」이야 둥둥 소리나 좋지、
썩은 계란으로 주어 맞는 아이크씨
낯바닥에서는 소리도 안 난다네
거기도 가죽이 씌워 있긴 하지만…

주어 맞으며 눈 코 비비며
아이크씨 생각을 하네…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거 원 이럴 수야 있나?……)

암 그래야지!
바로 그래야지!

맷복 좋은 당신을
어찌 치지 않으리。

미국놈이 온다。
모두 칠 차비를 하자!

—一九六〇—

머리에 대하여

당신도 기억 나시지?
남조선에서 『맥케너리』라는 중대장놈이
조선 녀성의 머리를 깎은 것이…
그러나 그 놈은 한낱 중대장,
나는 죄죄하게 그런 자들과는

시시비비를 캐려고 하지 않소。
아메리카의 우두머리 중대장은
바로 당신이거니、
당신에게 물어 보리다:
「내 당신의 머리를 좀 깎아 드리리까?」

나는 물론 리발사는 아니요、
그러나 나도 깎을 수 있소、
덜된 인간들의 머리 우에 돋아 난
잡초는 뽑아 내기 좋아합니다。
당신은 번대머리、
그런데

당신의 그 번득거리는 두개골 우엔
웬 잡초가 그리 무성했소?

속안에 잡념이 많아
밖으로 자꾸 돋아 나오는 모양이요。
머리도 깎아야 하겠지만
뻴안에 돋은
검은 털들을 먼저 밀어야 하겠소。

—一九六〇—

『건강 진단』

아이크씨、

요사이『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 모양、

어디 건강 진단이나 한 번 해 봅시다。

우선、입。

우리 조선에서는

거짓말 잘 하고
금방 제가 한 말도 안 했다고 하고
앞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그런 인간을 가리켜
혓바닥을 두 개 가진 놈이라 하는데、
어디 한 번 세여 봅시다、
당신에게는 도대체
혀가 몇 장이나 되는지…?

「아―」 입을 벌리시오 「아―」
어이쿠! 이게 몇 장이요?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장!
………
………
어! 이래 가지군 안 되겠군!
누구 한 사람 가서
빨리 계산기나 산판을 가져 오시오。
자、다음은 한 번 재여 봅시다。
아니 키가 아니라

아이크씨의 얼굴 두데 말이요。
우리 조선에서는
뻔뻔스럽고 렴치 없고
미욱하고、량심 없고
소도적 같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낯가죽이 두더운 놈이라고 하는데、
한 번 재여 봅시다、당신의 낯가죽은
도대체 몇 센치나 되는지…?

어이쿠!
이거 온통 콩크리트군!
웬만한 망치로나 쳐서는

꿈에도 근지러워도 안 하시겠군。

아이크씨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당신의 그 귀여운 손자의 뺨도
바로 이 뺨으로 비벼 주십니까?
저런! 불쌍해라! 가련해! 그 소년。
철없는 그 어린애에게야 무슨 죄 있으랴만、
이 두려운 낯가죽이
소가 잔등 비비듯 버벅 문지를 걸 생각하니……

아이크씨、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정조가 매우 나빠요。
뇌 수술을 하든지、아니면、
지말 병원에라도 입원을 좀 하시오。
——一九六〇——

「환송사」

—아이젠하워는 일본을 방문하려다 못 하고 쫓겨 갔다—

불원 천리 로구를 무릅쓰고
문 앞에까지 왔다가 쫓기여 가시다니,
오호타! 이 「유감」을 어이 하오리까.
요사이 일본은 록음도 우거져

『세도 내해』의 풍치도 한창 좋은데、
멀리 망원경으로라도 바라보고 가시는지?

내 아직 견문이 부족하여
인류 력사 수천 년의 만 권 서적 다 뒤져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문전 도주하였음은
오직 당신에게서 처음 보고 듣나니、
장하도다! 세계 외교사상의 첫 도망자여。

내 여기 『환송사』를 보내노니
원컨대 이것은 미 제국주의를
지옥으로 보내는 『환송사』가 되게 하라。

—一九六〇—

론죄하노라 력사의 무대 우에서

론죄하노라 력사의 무대 우에서、
너— 아메리카
지구 우의 마지막 범죄자를、
너— 인류의 최후 반역자를。
자애롭고 엄격한

어머니—력사의 품안에서
인류는 아득한 수십만 년 전 그 날로부터
로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진펄이와 가시밭과 어둠으로 찬
원시의 긴긴 밀림과 동굴을 벗어 나
오늘 지구 우에 햇빛 눈부신
공산주의 락원 앞에까지 이르렀더라。

그 아득한 로정에서 인류는
굶주림과 추위와 병마와 싸워 왔고
무지와 몽매의 긴 밤을 지나왔으며
홍수와 가물과 눈바람을 뚫고 왔으며

배암의 무리 이리의 떼들도 처물려 왔으나
그 모든 험난한 싸움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고 사납고 오래인 결사전은
바로 인간 자신 속에서 생겨 나는
온갖 도적 반역자 기생충들과의 싸움이였다。

자기의 팔 다리를 놀리고
이마에 땀 흘려서만 살 줄 아는
부지런하고 정직한 인간의 대렬 속에서
어느새 변종들이 나타나
그들은 승냥이와 빈대와 같이
낮잠과 도적질로 사는 법을 배웠나니

지금 그들의 족속은
태평양 한가운데 그의 큰집을 두고
지구의 구석 구석에
벼룩이 퍼지듯 퍼지여 났다。

금화와 지폐 속에서 생겨 나
그것을 먹고 사는 이 기생충 부대는
지금 화약통을 쌓아 놓으며
인류가 걸어 온 모든 행로와
그의 모든 문화와 아름다움과
그의 모든 도덕과 장래 운명에
마지막 결투를 걸고 나섰다、

놈들은 지구를 통채로
아메리카「킹 콩」들이 지배하게 하든지
아니면 지구 덩이를
송두리째 까 없애겠단다。

인류가 싸워 온 온갖 원쑤들 중에서
양키의 무리와 같은
그런 반역의 무리는 더 없었나니
인간이 지구 우에 태여난 이후
동서 고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악덕과 파렴치와 간악함을
아메리카는 집대성하고 「완성」하였다。

「네로」는 우유로 채운 목욕탕 앞에서
벌거벗고 비파를 타며 노래 불렀다 하라、
양키들은 인간의 피로 채운 목욕탕에서
인간의 백골을 두드리며 「쟈즈」를 부른다
「진시황」은 책과 선비들을 불살랐다 하라
아메리카는 력사와 인류를 통채로 불사르련다
맹수는 굶주리여 사람을 물어 간다 하라
양키들은 배부른 나머지
심심풀이로 사람을 죽인다。
이 아메리카의 「사람」들이

대포를 몰고 우리 땅에 뎀벼들었을 때
이 인간의 변종들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선의 인민들은 결사전에 나섰다。

다만 자기 어버이와 안해와
아들딸들을 위하여서만은 아니였다、
다만 자기 한 나라
한 강토를 위하여서만도 아니였다、
이 아메리카의 「킹 콩」들이
온 지구 우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도、
인류가 수천 수만 년
간고한 걸음 걸음으로 걸어 나온

그 문화의 긴 길을 다시 되돌아
하루 아침에 다시 벌거벗고
원시의 동굴 안에 들어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도
지구 밖에서 누가 찾아 온대도
지구 우에 사는 인간과 돼지와
원숭이들을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도
조선의 청년들은 목숨을 내걸고
「인간 짐승」들과의 결사전에 나섰나니
그들은 자기의 고귀한 피로써
인간과 양키와를 구별해 놓았으며
인간의 존엄 그의 영예를 수호하였다。

내 력사가는 아니나 시인으로 말하노니
아메리카는 바로 조선 땅에서
그의 마지막 멸망을 시작하였다、
조선의 산천은
그의 인민과 같이 아름다와서
지구의 공원이라고도 할 만하지만
그의 산악은 또한 높고 높아서
불의와 악덕 앞에는
한 걸음도 길을 비켜 주지 않았다。

하여 태평양을 넘어 온 아메리카의 대포는
십자가와 함께 함정골 밑에 꺾어져 굴고

『신성』한 아메리카의 『신화집』은
산산이 찢어져 휴지와 같이
력사의 들판에 뒹굴고 있다.
패전 장군인 트루맨과 맥아더 아이젠하워…
이 모든 인간 오작품들은
히틀러 도죠의 뒤에 줄을 지으며
창고에 들어 갈 차례를 기다리고
미 제국주의는 그의 더러운 이름으로
인류 사회의 마지막
『범죄자 명부』를 꾸미기 시작했다.

지금 인류 력사는

그의 유구한 과정에서
마지막 한 놈의 반역자가 죽어 가는
뜻깊은 순간에 서 있다、
베루가 났다、막이 내리련다、
착취와 침략이 등장하던
인류의 이야기 제 一막이 내리련다。
뒤이어 력사의 무대 우에는
한 마리의 인간 버러지도 없이
오직 인간—천사들만이 나와
공산주의의 대합창、대군무를 하게 되리라。

—一九六〇—

후기

이 시집은 「인민의 노래」, 「소박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뒤이어 나의 세째 번 시집이다. 그러나 풍자 시집이라는 점으로 볼 때 이것은 나의 첫 시집이다.

비록 적은 책이라고는 하지만 풍자적 시들만으로 한 권의 시집을 묶기에는 아직도 내가 하여 놓은 일이 너무도 적으며 나의 역량이 어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낀다.

돌이켜 보건대 나는 본래 풍자 전문가도 아니며 문학 수업에서 별로 풍자

에 판심한 것도 아니다。

생활이 나로 하여금 풍자적 시편들을 쓰게 하였다。 특히 조국 해방 전쟁의 불ㅅ길 속에서 미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증오와 저주를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미제를 규탄하는 풍자—정론적 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나는『저주의 노래』에서 내가 하고 싶은 소감의 일단을 말하였다。

나는 요사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웃음의 불ㅅ길 속에서 원쑤를 불사르겠는가를 생각하고 있다。

이 시집에는 최근 년간에 씌여진 시들 중에서 미제를 폭로 규탄하는 것만을 골라 수록하였다。

독자 대중의 기탄없는 의견과 지도를 바란다。

一九六一년 三월 一일

저 자

벌거벗은 아메리카

저 자 백 인 준

발행인 윤 세 평

발행소 조선 작가 동맹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1961년 4월 10일 15,000부 발행

값 ~~26~~전 ㄱ—62110

32

벌거벗은 아메리카

페지	행	오	정
三六	一〇	그도 숭래 용차에	그래도 숭용차에
六三	一一	섞어진 『대한 민국』을	썩어진 『대한 민국』을

1961
조선 작가 동맹 출판사